

 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	
		배포일시	2020. 12. 16.(수) 총 1매	
담당 부서	신공항기획과	담당자	• 과장 오원만, 사무관 권오준, 주무관 박찬호 • ☎ (044) 201-4137, 4171, 4143	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국토교통부는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결과를 존중하며,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.

< 보도내용(국제신문, 부산일보('20.12.16.)) >

◆ “국토부 또 유권해석 요청... 검증위 결론에 불복?”(국제신문)

- 국토부는 검증위 발표 직후 “겸허히 수용하겠다”며 “후속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”는 입장을 밝혔지만 다시 반기를 든 셈이다.

◆ “여권 ”법률 조항 의문점 해소용“ 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순 관측도”(부산일보)

- 국토부가 법률 위반이라는 검증위 판단에 반대 논거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지만, 국토부가 검증위 판단을 따르겠다고 밝힌 만큼 김해신공항 ‘백지화’ 수순으로 봐야한다는 의미다.

□ 국토교통부(장관: 김현미)는 ‘20. 11. 17.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 발표 직후, 검증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.

- 다만, 검증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.

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 권오준 사무관(☎ 044-201-417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